

### 13. 메시아 비밀과 신학 다시하기(막 8:22-30)

- “다른 이들을 대표해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말했지만, 예수는 이 고백을 뒤로 물린 채(having drawn this confession from them)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Ezra P. Gould, *The Gospel according to St. Mark* [ICC; New York: Scriber, 1896], 151). <http://nrs.harvard.edu/urn-3:HUL.FIG:001389065>
- “여기서 급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론적 사고(思考)나 혹은 제자들 사이에 일어난 이런 생각의 표현이 아니라 그들이 이것을 공개적으로 나타낸 일이다… 14:61-62에 이에 대한 공표(公表)가 나오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다. 때가 오면 제자들이 아닌 예수 스스로 이 비밀을 깰 것이다.” (R. T. France, *The Gospel of Mark* [NIGTC; Grand Rapids: Eerdmans, 2002], 330).
-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예수의 침묵명령은 메시아비밀의 한 요인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238);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진정한 정체는 십자가와 부활 때까지는 알려지지 않는다.” (M. Eugene Boring, *Mark: A Commentary* [NTL; Louisville: Westminster John Knox, 2006], 270).
- “예수는 세례와 함께 메시아로 인침을 받았지만, 부활한 이후에야 그 기능을 담당한다(9:9; 14:61-21을 보라).” (Adela Yarbro Collins, *Mark: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2007] 66).

#### A. 브레데(Wilhelm Wrede): 메시아 비밀 (1901)

1. 더러운 영들에게 조용하라고 명령 (1:25, 34; 3:12)=> 자신이 누구인지 숨김 (8:30; 9:9) 및 사람들을 고친 후 침묵요구(1:45; 7:36-37=> Luz, 메시아 비밀과는 다른 모티브)
2. 비유=>남들이 그 뜻을 깨닫지 못하게(4:10-13)=> Schweitzer, “one of the weakest points in Wrede’s whole theory” *The Quest of the Historical Jesus* [www.earlychristianwritings.com/schweitzer/chapter19.html]
3. 제자들이 깨닫지 못함(4:13; 4:40-41; 6:50-52; 7:18; 8:16-21; 9:5-6, 19; 10:24; 14:37-41)

#### 공헌

1. 마가복음은 역사적 기록이—당시 역사적 예수연구의 일반적 견해—아니라, 브레데는 마가복음이 신앙/신학적, 문학적 산물=> 초기 교회의 신앙고백. 문제점=> 두 개의 다른 견해
  - 예수는 부활 후 그리스도/메시아로 인식; 행 2:36; 롬 1:4; 빌 2:6-11) 반영.
  - 요한복음=>처음부터 그리스도/메시아
2. “역사적 예수” (예언자 전통=>예수의 자의식?)과 “신앙”의 그리스도/메시아 (교회의 고백) 사이의 틈을 신학적으로 연결.

#### 문제점

1. 비밀 모티브=> not consistent. (Wrede 도 인정=> “contradictions”; 왜냐하면, ‘메시아비밀’이 마가의 창작은 아님, *The Messianic Secret*, 145)
  - 여러번, 자신의 identity가 알려져 숨어다님(1:44-45)
  - 공개적으로 자신을 나타냄(5:19-20)
  - 명령이 지켜지지 않음(1:44-45; 7:36; cf. 7:24; 10:52)
2.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몰랐다면, 예수는 왜 그들을 보냈으며 또 무엇을 가르치게 했나? 또 제자들에게만 비밀리 자신을 알렸다면, 부활 때까지 예수의 참 모습을 모른 제자들에게 무슨 특별함이 있나? (사도 권위에 대하여)
3. 비평가들. 예수는 처음부터 스스로 메시아 의식을 갖고 있었다(슈바이처=>영미학과). 마가복음에서 예수의 역사성을 찾았던 브레데 이전 학자들이나 브레데 모두, 막 8:30에서 베드로 고백을 역사적 사실, 혹은 메시아 비밀 등 그 고백/기록의 진정성을 확신. 꾸짖음(에피타마오)에 대한 이해 부족.
4. 근본주의(예수는 처음부터 메시아=> 나와의 관계?); 자유주의(후대의 산물=> 진정성 문제)=> 둘 다 “메시아 비밀”이라는 가설에서 벗어나지 못함.

#### B. 메시아 비밀인가 신학 다시하기인가?

(가장 어려운, 3 개의 문구—8:30; 9:9; 10:45—를 신학 다시하기로 풀자. 오늘은 8:30 만!)

Key Passages/*The 'Messianic Secret' in Mark's Gospel* (Räsänen, 1976, 1990) (1:25, 34; 3:12=>침묵요구; 8:30; 9:9=> 경계요구)

1) 8:30

- καὶ ἐπετίμησεν αὐτοῖς ἵνα μηδενὶ λέγωσιν περὶ αὐτοῦ.
- KJV: And he charged them that they should tell no man of him.
- NRSV: And he sternly order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 NIV: Jesus warned them not to tell anyone about him.
- 개역: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 표준새번역: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자기에 관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하셨다.
- 공동번역: 그러자 예수께서는 자기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단단히 당부하셨다.
- AWP: 이에 [예수께서] 그[것]에 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도록 그들을 꾸짖으시고

꾸짖다(ἐπιτιμάω)=> 마 8:26; 12:16; 16:22; 17:18; 19:13; 20:31 (6 번); 막 1:25; 3:12; 4:39; 8:30, 32f; 9:25; 10:13, 48; (9 번); 눅 4:35, 39, 41; 8:24; 9:21, 42, 55; 17:3; 18:15, 39; 19:39; 23:40; (12 번); 복음서에만 27 번, 그 외 2 번(답후 4:2; 유 1:9)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회당, 더러운 영	1:25	x	4:35
더러운 영	3:12	12:16	4:41 귀신을 꾸짖음//막 1:34
바람	4:39	8:26	8:24
제자들	8:30 καὶ ἐπετίμησεν αὐτοῖς ἵνα μηδενὶ λέγωσιν περὶ αὐτοῦ.	x	9:21 ὁ δὲ ἐπιτιμήσας αὐτοῖς παρήγγειλεν μηδενὶ λέγειν τοῦτο
베드로가 예수를	8:32	16:22	
베드로를	8:33	x	
병어리, 귀떡은 영	9:25	17:18	9:42
제자들이 어린 아이들을	10:13	19:13	18:15
사람들이 소경을	10:48	20:31	18:39
			4:39 열병을 꾸짖음; 9:55; 17:3; 19:39; 23:40

Q: 왜 꾸짖었을까?

- 예수의 겸손함 (사회-과학 비평)
- 베드로의 권위에 해가 되는 문구(8:30, 33) 삭제=>베드로가 예수를 꾸짖음. 1:25=>예수는 회당에 안 들어가고 산으로 올라감 (모세=>산상수훈)
- Christ: different kinds/understandings => 신학/복음/이데올로기의 차이일뿐, 비밀이 아님!
- 그리스도 (막 1:1; 8:29; 9:41; 12:35; 13:21; 14:61; 15:32)
  - 1:1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이라
  - 8: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 9:41 누구든지 너희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가 결단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
  - 12:35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새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
  - 13:21 그 때에 누가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 14:61 잠잠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든 대체사장이 다시 물어 가로되 네가 찬송 받을 자의 아들 그리스도냐 => Yes I am (십자가형, 왜?)
  - 15:32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로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C.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마 16:13-20	막 8:27-30	눅 9:18-21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14 가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15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16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u>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u> 20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δυστείλατο) 자기 <u>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u>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17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오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18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28 여짜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의 하나라 하나이다  29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u>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u> 하며 30 예수께서 그들에게 엄중히 경고하시기를 (ἐπετίμησεν), 자기(αὐτοῦ, <u>그것</u> )에 관하여 <u>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u> 하셨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가라사대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9 대답하여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의 하나가 살아났다 하나이다  20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u>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u> 하니  21 경계하사(ἐπιτιμήσας)의 말(τούτο)을 <u>아무에게도</u> 이르지 말라 명하시고

REFLECTIONS:

1. “그리스도”라는 의미는?
2. 내게 있어, 그리스도의 역할은?

우리들 문제. 브레테의 주장처럼 역사적 예수가 스스로를 메시아라고 인식하지 않았다면 (*The Messianic Secret*, 230),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에게, 기독교인들에게?)=> 거꾸로, 이들의 답: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만... 그렇다면, 십자가와 부활이 주는 효능은?=> 구원? (그 “구원”의 내용은?)

복음이란?

- 고전 15:1-4 => “내가 전한 복음은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후 다시 사시고..”
- 막 1:1 =>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시작[모범]이라”

어떤 예수? => 어떤 그리스도, 신학 다시하기 (우리가 그리는 예수상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결정한다.)

1. System(제도, 세계관)의 차이: 이 세상(제국주의) vs. 하느님 나라
2. CCC: Challenging, Caring, Creating
3. 나의 길: 내 신학하기. 장점=> 마츨형 신학=> 내 이야기/삶에 의미를 부여. 신학 다시하기=> 일관된 신학, 신앙, 삶 (정적=> 동적으로; 부분적=> 총체적). Q. 내 삶에 복음을 맞추나? (Why not? 자기 변명과의 차이는?=>성서와 전통에 근거하여=기독교)

	역사적 예수 Historical	성서적 예수 Biblical=> “Real”	신학적 예수 Dogmatic
Character	갈릴리, 실존인물	신학하기 주인공	그리스도
반응	무시, 혹은 위험 인물 => 십자가 처형	삶의 모범 (ἀρχή)	대속의 죽음 (=> 특별한 죽음, 예외)
가치	역사적/고고학적 자료=> Scandal	따라감 (제자도)=> 현재의 삶을 디자인	바라만 보는 예수 (십자가)=> 보험

REFLECTIONS:

- 이런 성경공부 누가 듣나?
- 취미생활(intellectual exercise)이나 사후보험(fundamentalism)이 아닌, 지금 내 삶을 의미있게 살기 위해. (나와 다른 이들을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정체성 확립문제)

AUDIENCE

- 교회에 문제점을 인식, 아파하는 자
- 교회 (기독교 전통) 밖에 있는 자. 왜? 전도와 가치(나는 좋다고 생각하지만...) => 근데, 누가 판단하나?
- 지배/피지배 이중논리가 아닌,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에게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 (지배이데올로기 신학/복음/가치에서 혜택을 받지 못한 자)